

# 여대생의 흡연에 대한 위험지각도

## The Degree of Female Undergraduates' Perceived Risk of Smoking

강현숙

수원여자대학 치위생과

Hyun-Sook Kang(khsook@swc.ac.kr)

### 요약

이 연구는 여대생의 흡연에 대한 흡연위험지각도를 파악하여 여대생의 금연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경기도에 소재한 S대학 여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2009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18문항, 흡연위험지각도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여대생들의 흡연위험지각도에 대한 결과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32점으로, 흡연위험지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낮은 여대생일수록 흡연위험지각도가 높았으며,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7.14, p<.01$ ). 셋째, 본인의 흡연 여부별로는 비흡연 여대생이 흡연 여대생보다 흡연위험지각도가 높았으며, 흡연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43, p<.05$ ). 넷째, 흡연하는 친구 수별로는 흡연하는 친구가 1명 있는 여대생이 흡연위험지각도가 가장 높았고, 3명 이상 있는 여대생은 흡연위험지각도가 낮았으며, 흡연하는 친구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14, p<.05$ ). 다섯째,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흡연위험지각도는 '불만족하다'는 여대생이 흡연위험지각도가 가장 높았고, 만족,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4.81, p<.01$ ).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여대생들에게 금연의 중요성과 금연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중심어 : | 흡연 | 흡연위험지각도 | 금연교육 |

###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figure out the variables affecting the degree of female undergraduates' perceived risk of smoking and utilize them as foundational data for educating them to quit smoking. Thereupon, it conducted a self-administered survey from May 18 till 25 of 2009 to 231 female undergraduates attending S University located in Gyeonggi-do. The study tool contains 19 ite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8 of the degree of perceived risk of smoking.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gained.

1. According to the result on the degree of female undergraduates' perceived risk of smoking, the degree was shown high as the average was 4.32 among the perfect score of 5; thus, the degree of perceived risk of smoking was high. 2. In terms of the household economic level, female undergraduates with the lower economic level indicated the higher degree of perceived risk of smoking. There existed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ir economic level ( $F=7.14, p<.01$ ). 3. In regard of whether the female undergraduate smokes or not, the non-smoker perceives the degree of risk of smoking more highly than the smoker does;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y whether they smoke or not ( $t=-2.43, p<.05$ ). 4. About the number of friends who smoke, female undergraduates with one smoking friend show the highest degree of perceived risk of smoking. Those having three or more smoking friends indicate the low degree of perceived risk of smoking. There exists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number of smoking friends they have ( $F=3.14, p<.05$ ). 5. According to the degree of perceived risk of smoking by their school life satisfaction, the female undergraduates expressing 'dissatisfaction' show the highest degree of perceived risk of smoking while 'satisfaction' indicates the average level.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F=4.81, p<.01$ ).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based on this research which can allow female undergraduates to learn the importance of quitting smoking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for it.

■ keyword : | Smoking | Smoking-hazards Perception | Non-smoking Education |

## I. 서론

담배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약 400년 동안 대부분 남성기호품의 하나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여성 흡연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

World Health Organization(2005)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해 평균 6.5초당 1명씩 사망하며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오늘날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 중 약 5억명은 흡연과 관련되어 사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흡연은 흡연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건강까지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건강증진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의 32%,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13%,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88%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중고생 흡연율을 보면, 남중생은 2007년 4.8%, 2008년 5.7%, 남고생은 2007년 16.2%, 2008년 18.1%로, 여중생은 2007년 2.6%, 2008년 2.2%, 여고생은 2007년 5.2%, 2008년 3.5%로 나타났으며, 여대생 흡연률은 2001년 8.5%에서 2005년 21.9%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성인 남녀 비율을 보면, 남성의 흡연률은 2006년 45.9%, 2007년 43.4%, 2008년 40.4%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여성의 흡연률은 2006년 2.8%, 2007년 3.7%, 2008년 3.7%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29세의 성인 여성의 흡연률은 2008년 현재 4.8%로 나타나[2] 이에 대한 적절한 금연정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인간에게 미치는 흡연의 폐해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심각하기 때문에 여성 흡연의 증가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성별에 따른 흡연의 유독성을 살펴보면, Vriz[3]는 흡연이 남녀 모두 심장에 유독하나 특히 여성에게 더 유독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폐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남성 흡연자보다 두 배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남성 흡연자는 비 흡연자에 비해 폐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0배가 높고 여성흡연자는 20배 높다고 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체장암은 60%, 당뇨병은 80%, 유방암은 40~50%가 높았고, 심근경색증의 상대적 위험도 남성에 비해 두 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이 10배 이상 더 높으며[1], 구강인두암, 방광암, 대장암, 자궁암, 신장암 등의 발병 위험성도 높다고 하였다 [4][5].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임신, 출산, 수유의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흡연은 남성의 흡연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임여성의 흡연은 임신율을 낮추며, 임신부가 흡연하면 조산, 사산, 선천성 기형과도 관련이 있고[6][7], 저 체중아 출산 또는 폐기능이 낮고 기관지염과 천식을 앓는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비흡연 여성에 비해 2배나 되며[8], 흡연한 임신부가 낳은 아기에서 임신 중 비흡연 임신부가 낳은 아기보다 아기 돌연사의 위험이 높고[2], 조기 폐경과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9]. 성인 초기 단계에 있는 여대생들은 결혼, 직업 선택, 직장 적응 등의 발달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10],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통해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문제는 매우 중요하다[11]. 그러므로 임신, 출산, 육아 등 미래의 건강사회를 책임질 여대생의 흡연체험을 근거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생활환경, 흡연환경,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흡연위험지각도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금연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S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243명을 선정하여 2009년 5월 18일 부터 25일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43명 중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12부를 제외한 23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방법

조사도구는 선행연구[15]를 수정·보완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설문문항은 총 26문항으로 일

반적 사항 18문항, 흡연위험지각도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흡연위험지각도에 관한 질문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위험지각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0.72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여대생들의 흡연위험지각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t-test(검증)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

#### 1.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231명의 여대생 중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30.3%, 21세 16.9%, 22세 22.9%, 23~24세 14.3%, 25세 이상 15.6%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27.7%, 2학년 37.7%, 3학년 34.6%로 나타났다. 수업형태별로는 야간이 51.5%로 주간 48.5%보다 많았다. 출신고교별로는 인문고가 6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실업고 18.6%, 상업고 12.6%, 기타 3.0% 순이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32.5%, 불교 12.1%, 기타 7.4%, 천주교 6.9% 순이었고, 종교가 없는 여대생은 41.1%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학력별로는 고졸이 57.6%, 대졸 이상 18.2%, 중졸 10.8%, 전문대졸 8.2%, 초등졸 이하 5.2%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중간 수준이 64.9%, 중하 23.4%, 중상과 최하 4.8%, 최상 2.2% 순이었다. 주거형태별로는 자기 집이 7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취 11.7%, 기타 3.9%, 하숙 3.0%, 친척 집 2.6% 순의 분포를 보였다. 한 달 용돈은 20만원 이상이 41.1%, 10~15만원 미만 13.0%, 5~10만원 미만

12.6%, 5만원 미만 10.4% 순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세 이하	70	30.3
	21세	39	16.9
	22세	53	22.9
	23~24세	33	14.3
	25세 이상	36	15.6
학년	1학년	64	27.7
	2학년	87	37.7
	3학년	80	34.6
수업형태	주간	112	48.5
	야간	119	51.5
출신고교	인문고	152	65.8
	상업고	29	12.6
	실업고	43	18.6
	기타	7	3.0
종교	기독교(개신교)	75	32.5
	불교	28	12.1
	천주교	16	6.9
	무교	95	41.1
	기타	17	7.4
부학력	초등졸 이하	12	5.2
	중졸	25	10.8
	고졸	133	57.6
	전문대졸	19	8.2
	대졸 이상	42	18.2
가정의 경제수준	최상	5	2.2
	중상	11	4.8
	중	150	64.9
	중하	54	23.4
	최하	11	4.8
주거형태	자기 집	182	78.8
	친척 집	6	2.6
	자취	27	11.7
	하숙	7	3.0
	기타	9	3.9
월용돈	5만원 미만	24	10.4
	5~10만원 미만	29	12.6
	10~15만원 미만	30	13.0
	15~20만원 미만	53	22.9
	20만원 이상	95	41.1
계		231	100.0

#### 1.2 생활환경 특성

거주 주택환경별로는 주택가, 연립 및 아파트 단지가 81.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교 및 학원 주변 10.8%, 시장 또는 상가 6.5%, 유흥가 1.3% 순이었다. 성장 생활배경별로는 도시지역이 79.2%, 농촌 17.7%, 기타 3.0%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생활환경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거주주택 환경	시장 또는 상가	15	6.5
	주택가, 연립 및 아파트 단지	188	81.4
	유흥가	3	1.3
	학교 및 학원 주변	25	10.8
성장 생활배경	도시	183	79.2
	농촌	41	17.7
	기타	7	3.0
계		231	100.0

1.3 흡연환경 특성

본인의 흡연 여부별로는 비흡연 여대생이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흡연을 하는 여대생은 18.2%이었다. 아버지 흡연 여부별로는 아버지가 흡연을 하는 여대생과 그렇지 않은 여대생이 각각 49.8%, 50.2%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어머니 흡연 여부별로는 어머니가 비흡연 여대생이 96.1%, 어머니가 흡연을 하는 여대생은 3.9%로 매우 적었다. 남자형제 흡연 여부별로는 남자형제가 비흡연 여대생이 78.8%로 남자형제가 흡연을 하는 여대생 21.2%보다 많았다. 여자형제 흡연 여부별로는 여자형제가 비흡연 여대생이 96.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자형제가 흡연을 하는 여대생은 3.5%로 매우 적었다. 남자친구 흡연 여부별로는 남자친구가 비흡연 여대생이 75.3%로 남자친구가 흡연을 하는 여대생 24.7%보다 많았다. 흡연하는 친구 수별로는 '없다'가 45.9%, 2명이 17.7%, 1명 14.7%, 3명 10.4%, 5명 6.5%, 4명 4.8% 순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흡연환경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흡연여부	한다	42	18.2
	안 한다	189	81.8
부흡연 여부	핀다	115	49.8
	안 핀다	116	50.2
모흡연 여부	핀다	9	3.9
	안 핀다	222	96.1
남자형제 흡연여부	핀다	49	21.2
	안 핀다	182	78.8
여자형제 흡연여부	핀다	8	3.5
	안 핀다	223	96.5

남자친구 흡연여부	핀다	57	24.7
	안 핀다	174	75.3
흡연하는 친구수	없음	106	45.9
	1명	34	14.7
	2명	41	17.7
	3명	24	10.4
	4명	11	4.8
	5명	15	6.5
계		231	100.0

1.4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여대생이 26.8%로 불만족한 여대생 25.1%보다 많았으나 보통이 48.1%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여대생들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4].

표 4. 학교생활 만족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만족	6	2.6
만족	56	24.2
보통	111	48.1
불만족	42	18.2
매우 불만족	16	6.9
계	231	100.0

2. 흡연위험지각도

여대생들의 흡연위험지각도에 대한 결과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32점으로 여대생들의 흡연위험지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위험지각도를 묻는 문항 중에는 '임신 중 담배를 피우면 불임이나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4.70점, '담배는 후두암, 폐암을 유발한다' 4.60점, '어릴 때부터 흡연할수록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 4.52점, '담배를 피우면 피부노화가 촉진되어 주름살이 빨리 생긴다' 4.51점, '담배는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4.43점, '담배를 피우면 풍치가 예방된다' 4.16점, '담배를 피우면 체중이 감소된다' 3.68점, '흡연은 발기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3.5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흡연위험지각도

구분	MEAN	SD
어릴 때부터 흡연할수록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	4.52	0.75
담배는 후두암, 폐암을 유발한다	4.60	0.59
임신 중 담배를 피우면 불임이나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4.70	0.58
담배는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4.43	0.74
담배를 피우면 피부노화가 촉진되어 주름살이 빨리 생긴다	4.51	0.68
담배를 피우면 폐치가 예방된다	4.16	1.26
담배를 피우면 체중이 감소된다	3.68	1.20
흡연은 발기 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3.94	1.03
흡연위험지각도	4.32	0.52

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위험지각도

연령별 흡연위험지각도는 21세와 23~24세, 22세, 25세 이상, 20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3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수업형태별로는 주간인 여대생이 야간인 여대생보다 흡연위험지각도가 높았으며, 수업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12, p<.05$ ). 출신고교별로는 인문고 출신 여대생이 4.32점, 비인문고 출신 여대생이 4.30점으로 나타났다. 종교별 흡연위험지각도는 기타 종교인 여대생이 4.46점, 불교 4.32점, 무교 4.31점, 기독교 4.30점, 천주교 4.27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인 여대생의 흡연위험지각도가 4.35점, 중졸이하 4.33점, 고졸인 여대생은 4.29점으로 나타났으나 부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낮은 여대생일수록 흡연위험지각도가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7.14, p<.01$ ). 주거형태별로 나타난 흡연위험지각도는 자가에 거주하는 여대생이 4.31점,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여대생이 4.34점으로 나타났으나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 달 용돈별로는 10만원 미만 4.37점, 10~15만원 미만 4.31점, 15~20만원인 여대생이 4.39점, 20만원 이상 4.25점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위험지각도

구분		N	Mean	SD	(F)	p
연령	20세 이하	70	4.22	0.59	0.98	0.422
	21세	39	4.38	0.48		
	22세	53	4.37	0.52		
	23~24세	33	4.38	0.42		
	25세 이상	36	4.30	0.47		
학년	1학년	64	4.35	0.51	0.13	0.880
	2학년	87	4.30	0.49		
	3학년	80	4.31	0.56		
수업형태	주간	112	4.39	0.52	2.12	0.036*
	야간	119	4.25	0.50		
출신고교	인문고	152	4.32	0.49	0.26	0.796
	비인문고	79	4.30	0.57		
종교	기독교(개신교)	75	4.30	0.49	0.36	0.836
	불교	28	4.32	0.57		
	천주교	16	4.27	0.44		
	무교	95	4.31	0.53		
	기타	17	4.46	0.54		
부학력	중졸 이하	37	4.33	0.58	0.29	0.746
	고졸	133	4.29	0.51		
	전문대졸 이상	61	4.35	0.50		
가정의 경제수준	상	16	3.89	0.62	7.14	0.001**
	중	150	4.32	0.47		
	하	65	4.42	0.55		
주거형태	자가	182	4.31	0.49	-0.28	0.780
	비자가	49	4.34	0.61		
월용돈	10만원 미만	53	4.37	0.53	1.03	0.380
	10~15만원 미만	30	4.31	0.55		
	15~20만원 미만	53	4.39	0.50		
	20만원 이상	95	4.25	0.50		
전체		231	4.32	0.52		

\*  $p<.05$ , \*\*  $p<.01$

2.2 생활환경 특성에 따른 흡연위험지각도

주택환경별로 나타난 흡연위험지각도는 시장 또는 상가 및 유흥가에 거주하는 여대생은 4.07점, 주택가, 연립 및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여대생은 4.35점, 학교 및 학원주변은 4.25점으로 나타났으나 주택환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장한 생활배경별로는 도시 지역에서 성장한 여대생이 4.33점, 농촌 및 기타 지역의 여대생은 4.28점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7].

표 7. 생활환경 특성에 따른 흡연위험지각도

구분		N	Mean	SD	t(F)	p
주택환경	시장 또는 상가/유흥가	18	4.07	0.70	2.67	0.072
	주택가, 연립 및 아파트 단지	188	4.35	0.49		
	학교 및 학원주변	25	4.25	0.51		
성장한 생활배경	도시	183	4.33	0.48	0.51	0.609
	농촌/기타	48	4.28	0.63		
전체		231	4.32	0.52		

2.3. 흡연환경 특성에 따른 흡연위험지각도

본인의 흡연 여부별로는 비흡연 여대생이 흡연 여대생보다 흡연위험지각도가 높았으며, 흡연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43, p<.05$ ). 아버지 흡연 여부별로는 아버지가 흡연을 하는 여대생이 4.34점, 그렇지 않은 여대생은 4.30점이었으나 아버지의 흡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흡연 여부에 따른 흡연위험지각도는 어머니가 비흡연 여대생이 4.32점, 어머니가 흡연을 하는 여대생은 4.11점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흡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자형제 흡연 여부별로는 남자형제가 비흡연 여대생이 남자형제가 흡연을 하는 여대생보다 흡연위험지각도가 높았으며, 남자형제 흡연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3.38, p<.01$ ). 여자형제 흡연 여부별로는 여자형제가 비흡연 여대생이 여자형제가 흡연을 하는 여대생보다 흡연위험지각도가 높았으며, 여자형제 흡연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04, p<.05$ ). 남자친구 흡연 여부별로는 남자친구가 흡연을 하는 여대생 4.23점, 남자친구가 비흡연 여대생은 4.34점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흡연하는 친구 수별로는 흡연하는 친구가 1명 있는 여대생이 흡연위험지각도가 가장 높았고, 3명 이상 있는 여대생은 다른 여대생보다 흡연위험지각도가 낮았으며, 흡연하는 친구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14, p<.05$ )[표 8].

표 8. 흡연환경 특성에 따른 흡연위험지각도

구분		N	Mean	SD	t(F)	p
본인의 흡연여부	한다	42	4.14	0.55	-2.43	0.016*
	안 한다	189	4.35	0.50		
부흡연 여부	핀다	115	4.34	0.52	0.61	0.541
	안 핀다	116	4.30	0.51		
모흡연 여부	핀다	9	4.11	0.84	-0.75	0.473
	안 핀다	222	4.32	0.50		
남자형제 흡연여부	핀다	49	4.10	0.52	-3.38	0.001**
	안 핀다	182	4.37	0.50		
여자형제 흡연여부	핀다	8	3.95	0.79	-2.04	0.043*
	안 핀다	223	4.33	0.50		
남자친구 흡연여부	핀다	57	4.23	0.59	-1.35	0.180
	안 핀다	174	4.34	0.49		
흡연하는 친구수	없음	106	4.36	0.48	3.14	0.026*
	1명	34	4.43	0.44		
	2명	41	4.32	0.49		
	3명 이상	50	4.13	0.61		
전체		231	4.32	0.52		

\*  $p<.05$ , \*\*  $p<.01$

2.4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흡연위험지각도

학교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여대생이 흡연위험지각도가 가장 높았고, 만족,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4.81, p<.01$ ). 따라서 학교생활에 대해 불만족한 여대생이 그렇지 않은 여대생보다 흡연위험지각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9].

표 9.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흡연위험지각도

구분		N	Mean	SD	F	p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62	4.41	0.49	4.81**	0.009
	보통	111	4.21	0.50		
	불만족	58	4.42	0.54		
전체		231	4.32	0.52		

\*\*  $p<.01$

IV. 결론 및 논의

건강증진을 실천하기 위한 삶의 양식은 흡연, 영양, 비만, 음주, 운동, 안전관리, 수면양상, 적응 가족관계 요인 등이 있다[12]. 이들 생활양식 중에서 특히 흡연은 여러 가지 신체질환의 유발요인으로 미래에 임신, 출산의 가임기에 있는 여대생에게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이다.

흡연이 건강에 위해하다는 결과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흡연은 여전히 여대생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일반적인 습관행위이다[13][14]. 여대생은 좋은 건강습관을 형성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하며 장차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대생들의 건강문제는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11].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의 금연과 흡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결과를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대생들의 흡연위험지각도에 대한 결과는 5점 만점 중 4.32점으로, 명[16]의 4.02점, 남궁[16]은 비흡연자 4.03점, 흡연자 3.65점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흡연 위험에 대한 지각이 다르므로 흡연 위험에 대한 지각을 느끼도록 교육하는 것이 금연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위험지각도를 묻는 문항 중에는 '임신 중 담배를 피우면 불임이나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4.70점으로 나타났다. 박[17]에 의하면 임신부가 담배를 한 개피 피울 때마다 태어날 아기의 체중은 11g씩 줄어들어, 임신 중에 흡연한 모체에서 태어난 아기는 체중이 평균 200g이 적으며, 유산 및 조산율도 3.3배나 높고 기형아 출산률과 신생아 사망률도 높다고 했다.

'담배는 후두암, 폐암을 유발한다'는 4.60점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담배의 발암물질에 대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이 발생할 때 비록 흡연 시작과 흡연량이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연령이 남성보다 의미 있게 젊었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담배의 발암물질에 여성이 감수성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2].

'어릴 때부터 흡연할수록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의 결과는 4.52점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더 많은 흡연을 하게 되고,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이 그들 부모의 음주, 흡연을 지켜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게 만들며, 저 연령층에서 일찍 흡연을 시작할수록 흡연기간이 길어져 흡연과 관련된 금연교육의 실시 시기가 빠를수록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18][19].

'담배를 피우면 피부노화가 촉진되어 주름살이 빨리 생긴다'는 4.51점으로 나타났다. 흡연 여성은 비흡연 여성보다 주름살이 3배 정도 증가하는데 담배 속에는 피부노화를 막아주는 각종 항산화제를 없애는 성분이 들어있고 담배의 니코틴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수축시킨 결과로 나타난다[2].

'담배는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4.43점으로 나타났다. 흡연 여성은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 여성의 2~6배이며, 월경불편감, 조기폐경, 골다공증, 자궁경부 이형증을 증가시키며, 흡연과 피임약은 상승작용을 나타내어 심근경색증과 혈전색전증의 발생률이 높다고 하였다[4][5].

'담배를 피우면 풍치가 예방된다'는 4.16점으로 김[20]은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13배나 높으며, 니코틴, 타아르 등은 점도가 매우 커서 치아에 프라그의 부착을 촉진하며 충치나 치주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청소년 시절의 흡연은 성인이 되어서 치주조직이 더 많이 손상되고 그 증상도 심해진다고 하였다.

'담배를 피우면 체중이 감소된다'에 대한 답변은 3.68점으로, 김[21]은 흡연자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체중이 평균 2~3Kg이 적은 이유는 흡연이 식욕감퇴를 일으키고 일산화탄소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조직의 산소결합 능력과 산소압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위험지각도는 수업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t=2.12, p<.05$ ), 이와 같은 결과는 주간 여대생의 경우보다 평균 연령이 많은 야간반 여대생의 사회진출의 시기가 빠른 결과로 여겨진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7.14, p<.01$ ), 서[22]와 김[23] 등의 '가정의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용돈을 많이 쓰는 학생일수록 흡연률이 높다'와는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흡연환경 특성에 따른 흡연위험지각도는 이[2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흡연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43, p<.05$ ).

여자형제 흡연 여부에 따른 흡연위험지각도는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t=-2.04, p<.05$ ). 여성들의 흡연은 자존심, 우울증, 불안, 체중 등의 요인들로 담배의 시작과 금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담배를 끊는 것이 더 힘들고 한번 중독이 되면 남성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2].

남자친구 흡연 여부별로는 흡연하는 친구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14, p<.05$ ). 흡연은 친구와의 어울리는 과정에서 시작되고 지속되며 흡연을 매개로 공감대를 갖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3][25].

여성의 흡연률을 감소시키는 대책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을 비롯하여 10대의 여성들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성인 초기 시기인 여대생의 습관적인 흡연행위가 확고히 형성되지 않도록 흡연위험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을 위한 보건교육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축하고 진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여대생의 흡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흡연기간 등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지 않았으며 일부대학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여대생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의 행위는 습관이 되기 쉽고 일단 습관이 형성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여성 흡연의 유해성 및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이숙희, "우리나라 성인여성의 흡연실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 <http://www.kash.or.kr>
- [3] O. Vriz, "Smoking is associated with higher cardiovascular risk in young women than in men, Journal of Hypertention," Vol.15, No.2, pp.127-134, 1997.
- [4] 박용주, 보건소식, 통권, 127호, pp.25, 1999.
- [5] A. Leone, "Cigarette smoking and health of the hear," Journal of R Society Health, Vol.115, No.6, pp.354-355, 1995.
- [6] M. Penner, M. "Economic incentives to reduce employee smoking:A health insurance surcharge for tobacco using state of Kansas employees," Psychological Review, Vol.4, No.1, pp.191-215, 1989.
- [7] G. Jones, M. Riley, and T. Dwyer, "Maternal smoking during pregnancy, growth, and bone mass in prepubertal children," Journal of Bone & Mineral Research, Vol.14, No.1, pp.146-151, 1999.
- [8] J. E. Fielding, "Smoking:Health effects and control,"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313, No.8, pp.555-556, 1985.
- [9] E. Susan, R. N. Hankinson, ScD., A. Graham, M. D. Colditz, E. JoAnn. M. D. Manson, and E. Frank, M. D. Speizer, *Health women, Health lives*, Fireside Company, pp.320-348, 2001.
- [10] 김애경, "건강행위에 대한 한국 청소년의 주관성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34권, 제1호, pp.50-54, 1995.
- [11] 김신정. 안은숙, "여대생의 건강개념과 건강행위", 대한간호학회지, 제27권, 제2호, pp.264-274, 1997.
- [12] 김조자, 전산초, 최영희, *성인간호학(상)*, 수문사, 1992.
- [13] J. S. Kendrick, R. K. Merritt, "Women and smoking:An update for the 1990s," American Journal of Obsterics and Gynecology, Vol.175, No.3, pp.528-535, 1996.
- [14] D. Hines, A. C. Fretz, and N. L. Nollen, "Regular and occasional smoking by college students:personality attributions of smokers and nonsmokers," Psychological Reports, Vol.83, pp.1299-1306, 1998.
- [15] 명현경, "여대생의 내적건강통제위, 자기효능감과 흡연 위험지각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6] 남궁후길, “흡연에 관한 위험지각도가 담배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17] 박명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18] 장영희, “청소년의 음주흡연과 학교생활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19] 김선희, “청소년들의 흡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20] 김순희,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음주, 흡연실태 분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1] 김상철, 금연대책, 대한의학협회지, 제30권, 제8호, pp.853-857, 1987.
- [22] 서일, “한국인의 흡연률과 그 역학적 특성”, 한국역학학회지, 제10권, 제2호, pp.131-137, 1988.
- [23] 김경선, 이지원, “여대생 흡연과 환경적 요인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제6권, 제2호, pp.185-197, 1999.
- [24] 이계은,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25] 광정옥, “일부 여대생의 흡연실태와 그 관련요인 분석”,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20-138, 1995.

<관심분야> : 여성건강, 영유아구강관리, 소아청소년 구강관리

저자 소개

강 현 숙(Hyun-Sook Kang)

정회원



- 2000년 : 중앙대학교 보건학 석사 졸업
- 현재 : 명지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 임상영양학 박사과정 중
- 2000 ~ 현재 : 수원여자대학 치위생과 교수